

목하,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어. 남주씨가 손을 잘 못 대어서 현재는 #001의 링크가 (username) 가 연결이 끊긴 상태야. 내 수시로 시도해서 기어코 연결을 맺으라고 신신당부했지만, .. 과연 결과를 가져올지 기다리는 중이야. 남주씨, 애길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해보니, 링크 (facebook.com/iBooth.net/#001)를 내가 7월 5일 만남에서 줬다고 해서 자기가 연결을 했는데, 이후에 보니 그 연결이 자기도 모르게 끊어져있더랬어. 그 기억을 아예 처음부터 내가 자기에게 이 링크를 줬지, username을 준 게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. 자기는 여태 한번도 이 링크가 작동되는 걸 본 적이 없었데. 오늘 새벽에 자기가 username을 수정했을 때를 제외하곤. 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릴해서 뭐라 반박도 못했지만, ..가만 생각해보니 이 친구가 링크가 뭐 고 username 이 뭔 지를, 솔직히 이 둘이 같은 건데, .. 여태 모르고 있다는 거야. 누가 맞는 거니 지니?

용차이님 설명을 종합해 보면, **기술적으로는 남주씨가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.**

페이스북에서는 이 둘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.

1. Username

- 페이지의 고유 아이디입니다.
- 예를 들어 iBooth.net/#001
- 페이지 설정에서 변경하는 값입니다.

2. 링크(URL)

- <https://facebook.com/iBooth.net/#001>
- 또는 <https://www.facebook.com/iBooth.net/#001>
- 이 링크는 **username**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주소입니다.

즉,

username이 먼저 있고, 링크는 그 username을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.

링크 자체를 따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.

그래서 7월 5일 상황을 추정해 보면,

용차이님은

"이 주소를 사용하세요."

하면서

facebook.com/iBooth.net/#001

을 적어 주셨을 겁니다.

하지만 실제 의미는

username을 iBooth.net/#001로 맞추세요.

라는 뜻이었던 것이죠.

남주씨는 아마

"아, 인터넷 주소 하나 알려주셨구나."

정도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남주씨가 오늘 한 말,

"나는 링크를 받은 줄 알았지 username은 받은 적이 없다."

는 표현은,

기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.

왜냐하면

facebook.com/iBooth.net/#001

이라는 링크에서 핵심은 **iBooth.net/#001이 바로 username**이기 때문입니다.

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

웹 주소(URL)와 계정 이름(username)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,

- 링크는 인터넷 주소,
- username은 별도의 계정 이름

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

그래서 이번 일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**개념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**로 보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.

남주씨는 "링크"를 기억했고,
용차이님은 "username을 전달했다"고 생각한 것입니다.

사실 두 분은 같은 문자열(iBooth.net/#001)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, **각자 다른 개념으로 이해**하고 있었던 셈입니다.

오히려 이번 사건은 원펀치캠프 운영일지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사례입니다.

AI나 디지털 도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'링크'와 'username'도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. 운영자는 기능을 설명하기보다, "이 글자(iBooth.net/#001)가 페이지의 이름이고, 그 이름으로 주소가 자동 만들어진다"는 관계 자체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내가 적어준 것은 정확히 facebook.com/iBooth.net/#001 이었어. 그리고 남주씨는 개발자 30년 경력자야.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해오고 있고. 이게 도무지 이해가 돼? 난 이해가 안되거든~

용차이님,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.

남주씨가 **30년 경력의 개발자**라면, 일반 사용자처럼 URL과 username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오히려 저는 다른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.

가능성 1. 기억이 재구성되었을 가능성 (가장 높음)

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과거 기억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남주씨는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

"내가 username을 잘못 이해했을 리는 없어."

"그럼 용찬 형이 링크만 준 거였겠지."

즉, 고의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.

가능성 2. "링크를 눌러본 것"과 "username을 설정한 것"을 다른 사건으로 기억

facebook.com/iBooth.net/#001

을 받았더라도,

그걸

- 그냥 접속용 주소

로만 인식했고,

나중에 오늘 새벽 처음으로

- "아, 이게 username이구나."

라고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.

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

"오늘 처음 username이라는 걸 알았다."

라고 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일관됩니다.

가능성 3. 페이스북의 동작이 혼란을 줬을 가능성

이건 제가 조금 의심하는 부분입니다.

7월 5일 당시

facebook.com/iBooth.net/#001

이 실제로 접속되었다면,

남주씨는

"링크가 되는구나."

만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그게 **페이지의 username이라는 사실**까지는 연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제가 용차이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

이 문장입니다.

"자기는 여태 한번도 이 링크가 작동되는 걸 본 적이 없었대. 오늘 새벽 username을 수정했을 때를 제외하곤."

이게 사실이라면 앞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.

왜냐하면,

- 7월 5일에 그 주소를 받았고,
- 그 주소를 가지고 작업했다면,

최소한 한 번은 그 주소를 봤어야 합니다.

그런데

"한 번도 본 적이 없다."

라고 말한다면,

그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**기억 자체가 현재 상태에 맞게 다시 정리된 것일**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두고 **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**보다 더 중요한 걸 봤습니다.

용차이님은 사실 이번에 **#001의 기술 문제보다 더 큰 운영상의 특징**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.

남주씨는 개발 실력이 부족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,

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

이건 앞으로 #001을 운영할 때도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제 권유는, 이번 일의 진실을 더 따지는 것보다 **페이스북에서 현재 username이 원하는 값으로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에** 집중하는 것입니다. 그게 해결되면 7월 5일의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. 다만, 이 사건 자체는 운영일지에는 남길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

내가 종이에다 손으로 적어서 준 걸~! 잊지 말라고. 그리고 내가 이걸 분양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, 두 분께 각기 말야 ~

아, 그 대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

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.

- **7월 5일 여의도에서 세 분이 만났다.**
- 용차이님이 종이에 직접 ****facebook.com/iBooth.net/#001****을 손으로 적어 주셨다.
- 그 자리에서 **"#001을 분양한다."**는 설명도 함께 했다.
- 즉, 단순히 인터넷 주소 하나를 적어준 상황이 아니라, **그 주소 자체가 #001의 정체성**이라는 맥락에서 전달한 것입니다.

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.

남주씨가 정말로

"나는 username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."

라고 말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

"형이 저 주소를 준 적도 없고, 그게 그런 의미인 줄도 몰랐다."

라는 취지라면, **그건 당시 상황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.**

왜냐하면 그 종이 자체가 **분양의 상징물**이었기 때문입니다.

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했습니다.

남주씨는 그날

"아, #001을 받았구나."

까지는 이해했습니다.

그런데 그 이후 **Facebook의 username 설정**이라는 기술적 작업과 **분양받은 #001**을 머릿속에서 연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그래서 문제가 생긴 뒤에는

"그때는 링크를 받은 거였지."

라고 기억이 단순화된 것입니다.

저는 한 가지를 조심하고 싶습니다.

이걸 두고 "남주씨가 거짓말을 한다"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.

하지만 **기억이 현재 이해 수준에 맞춰 재구성되었을 가능성**은 충분히 있습니다.

사람은 의외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. 특히 자신도 혼란스러웠던 사건은 나중에 "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했던 것"처럼 기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
그리고 저는 용차이님이 왜 답답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.

용차이님 입장에서는,

"나는 주소를 준 게 아니라 #001 자체를 준 것이다."

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.

종이에 적힌 facebook.com/iBooth.net/#001은 URL 한 줄이 아니라 **#001의 열쇠**였습니다.

그런데 남주씨는 그것을 나중에 '**그냥 링크 하나**'로 기억하게 된 것이니, 두 분의 대화가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